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염려에서 해방 되십시오’

[빌 4:6-7]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부 중보기도 : 목회 2 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에스터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 6:26]

1.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은혜 제단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주일 제단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3. 하늘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심령을 토로하는 회개와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빛으로 무장되는 성령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4.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세대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5. 예배를 통해, 때마침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으시고 곤고한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교회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6.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부: 권상욱목사님, 2 & 3부: 김대규목사님)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 118:24]

1. 생명의 살아나는 찬미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2.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악기와 시스템, 그리고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4.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케니박목사님, 장추현목사님, 이정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유춘배장로님, 장영호장로님, 조재훈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롬 15:13]

1. 거룩한 제단 위에 성령의 불과 은사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으시고,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하여 능력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2. 담임 목사님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영감과 영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선포를 통해 온 성도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성령의 불을 제단에 내려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3.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염려에서 해방 되십시오(빌 4:6-7)**’의 말씀이 전해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옵소서.
4. 모든 예배를 성령의 불성곽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5. 담임 목사님이 시대를 통찰하고 예견하여 복음주의 쇠퇴를 막고 열방을 향한 불타는 열정과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절대 진리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6.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천번제 종료 감사 부흥회: 4/15(목)~4/18(주일)

강사 : 박순애 전도사: “오직 믿음만이 미래와 희망이다” (렘 29:11)

성도양육과정 시작: 4/14(수)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늘 있게 하옵소서.
3. 옥토와 같은 마음 받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성령의 인도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꼭 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2.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평안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3. 진리에 대한 감동이 믿음의 결단과 삶을 변화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4.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폭포수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5.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제자 된 삶을 힘 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9:7-8]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고후9:7).
2.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하게 하옵소서(고후8:5).
3.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1. 다음 주 '일천번제 종료 감사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집회가 되게 하옵소서.
2. 은혜에 빛진 자로서 가정과 일터를 복음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3.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4.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일천번제 새벽기도,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시사철 푸른 감람나무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우리의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며, 세상속에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2. 다음세대가 거룩과 능력으로 무장되어 이 나라와 세계 교회를 이끌고 나갈 존귀한 인물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3. **중고등부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교육부, 성경적 성교육을 실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로 바르게 자라나게 하옵소서.
5. Jesus' Light 성도들이 비디오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받게 하옵시고 zoom 이용해 성경공부도 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간병하며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위에 세워 주옵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필요를 채워 주시며,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더욱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또 들뜸의 섬김이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혼란 속에 있는 미얀마에 평화를 주옵시고 그 땅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세계가 협력하여 미얀마를 돕게 하옵소서.
3. 선교지마다 현지인 지도자들을 잘 교육하고 세워서, 현지의 리더들을 훈련하여 많이 배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는 사역들이 잘 이어지게 하옵소서.
4. 선교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사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열어 주옵소서.
5.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게 주신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옵소서.
6.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사들이 계속 배출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복음의 증인들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항암중이신 선교사님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광식 선교사님(캄보디아) 쓰나미 마을에 예배처소가 마련되도록/ 현지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성도들을 위해 • 김도현 선교사님(베네주엘라) 신학교 수업을 하는 (4/26~30)동안 인터넷에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 사역도 재개되도록 • 한 00 선교사님(인도) 한국어 수업을 통해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 정 00 선교사님(P 국) 자립할 수 있게/ 4월 계획중인 컨퍼런스를 위해 	<p>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보호해 주옵소서 • 미얀마의 사태 진정을 위해 • 미얀마에서 인권 유린과 살인을 그치도록 • 미얀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 중국: 금지된 온라인 예배와 현장예배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예신 선교사님 (A 국) 암에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도록 • 유인숙 선교사님 (C 국) 선흔 3기 • 엘레나 찬양사역자 (블라디보스톡 교회) • 이해영 선교사님(T 국) 암이 왼쪽 영치부로 전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진섭 선교사님(태국) 목에 있는 물혹이 제거 되도록 • 양창모 선교사님 (터키)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 받으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연일 선교사님 (몽골) 뇌출혈 수술을 받았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 정 00 선교사님 (인도) 비중격 만곡증(코 연골 문제) 고침 받으록



1. 평등법(H.R.5, Equality Acts)이라는 포괄적인 동성애 인권법안이 연방상원에서 저지되게 하옵소서. 이 법안은 2월 25일 연방하원을 통과하고 현재 연방상원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남가주 평등법 저지운동 본부(대표: 한기홍 목사님)’는 저지 운동의 불길을 남가주에 국한하지 않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미국 전국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를 창설하고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에 동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2. 아틀란타와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총격 살인 사건 이후, 인종 문제와 총기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뉴스와 미디어를 통해 두려움과 갈등이 더욱 부추겨지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가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에 지혜를 더 하옵소서.
3. 하나님께서 친히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의 사람들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나라를 진리와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옵소서.
4. 교회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다시 임하게 하옵소서.

평등법 관련 중보기도 요청: 상원에 상정된 평등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평등법안: H.R.5’에 대처, 역차별 막는 법안들 통과되고 있어: 조바이든과 카밀라 해리스가 백악관에 들어오자마자 100일간 제일 먼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대부분 반기독교적이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정책들이었다. 현재 미국의 주정부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 ‘포괄적 동성애인권보호 평등법안 H.R.5’에 대비하여 두 부류로 나뉘고 있다. 한편은 법안을 더 확실히 실행하려는 주정부들이고, 다른 한편은 평등법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법안들을 역으로 제정하는 주정부들이다.

미 연방법원, “기독교학생회가 리더 뽑는데 신앙을 요구해도 된다”... 당연한 권리 인정

무너지는 미국 종교자유... 빅테크, 기독교인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 검열: 아마존과 페이스북 등 빅테크기업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기독교인의 콘텐츠에 대해 검열,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장관, ‘종교 자유 증진’ 위한 위원회 해산: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19년 전 세계적으로 종교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한 ‘양도 불가능한 권리위원회’를 공식 해산한다고 밝혔다고 5일 미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2019년 7월 창설된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위원회’는 낙태와 성소월주의자(성소수자) 권리를 수용하기 위해 수 년 동안 표류했던 인권을 정의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 종교자유센터 트레이비스 웨버 부소장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위원회”의 해산은 불행한 발전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종교 자유를 축소시키고 외교 정책에서 종교 자유의 역할이 하향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얼
방

- 한국, 퀴어행사 서울광장 개최 반대... 온라인 서명 진행
- 중국, 기독교인들, 신앙 포기 강요 세뇌*고문*구타당해
- 캘리포니아, 트랜스젠더 수감자 255명 여성 교도소 이동
- 인도, 마을주민들, 기독교인 가정 살해 협박
- 국제앰네스티 “북, 코로나 구실로 주민권리 제한 더 극심”
- 미국, 도로서 운전자 간 총격에 1살 아기 중태... 현역 군인 총격 사건도
- 민주 콩고, 인구의 1/3 극심한 굶주림
- 대만, 56년만에 가뭄... 반도체 생산 타격



‘일천번제 기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지난 부활 주일은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팬데믹으로 오랫동안 교회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지내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더욱 감격스러운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보기만 해도 살 것 같습니다. 비록 마스크는 쓰고 얼굴은 가렸지만 모습을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교육부도 중고등부 대학생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족들이 아직도 훨씬 많지만 그래도 교회는 성도님들이 나오시니까 활기가 있고 예배에도 영적으로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몸에 이상이 없는 한 건강하신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역시 교회 성전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며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교회 나오기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는 진행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예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길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드디어 일천번제 기도가 토요일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부터 시작되어 2021년 4월 10일 2차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3월 16일부터 미국은 팬데믹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는 위기 가운데서 일천번제 기도는 이때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천번제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영육이 회복되고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천번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박순애 전도사님 부흥집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입니다. 이번 2차 일천번제 기도를 마치면서 박순애 전도사님 초청 부흥집회를 갖게 된 것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은혜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박순애 전도사님은 삶속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종이십니다. 이번 집회에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집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고 영육이 회복되며 비전을 받는 축복 성회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담임 목사 드림



‘성도의 생활 원리는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순종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원리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조건이라면 순종이야말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학생의 학창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원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람들의 생활원리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생활원리는 바로 정. 오의 원리입니다.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따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주장들은 왜 상대방이 그르고 자신들이 옳은지, 그것을 주장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 시비가 있고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을까요? 역시 정과 오를 가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생활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생활원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위라는 보좌에 앉아 계시므로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요구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을 아는 성도님은 자연히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또한 전도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꼭 순종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을 가지시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아시기 위하여 바로 위임 권위제도라는 방안을 쓰시고 있습니다. 뻔전 2:13-3:6에서는 인간으로서 가장 순종하기 힘든 경우 세 가지를 들어 그 때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왕을 위시한 인간사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역사적으로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로마의 권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독교도에 대한 네로 황제의 잔악한 핍박은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고 며칠씩 굶은 사자들을 풀어놓습니다. 수천 명의 민중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굶주린 사자들이 성도들을 뜯어먹습니다.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화형 하는 것은 예사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왕에게도 순복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임권위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노예들에게 상전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전쟁에 처서 포로로 붙들려 무력에 못이겨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운데는 과거에 자기나라에서 귀족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갑부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군이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유명한 학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순복하라고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전도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권위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는 것처럼 힘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남편에게도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순복하기 힘든 위임 권위자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저런 위임 권위자에게도 순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이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암흑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는 이유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찾아왔을 당시, 법률가 출신이자 무정부주의자인 클레런스 대로라는 유명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경제 공황에 들어가자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연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사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무정부주의적인 자기의 신념을 선전했습니다.

하루는 흑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가 무신론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꿈과 재산을 잃었고 노래까지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라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그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노래할 수 있단 말입니까?”했더니, 그 할머니는 큰소리로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외치자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입니다”라고 동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금새 한 무신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던 강연장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는 군중들로 인해 바뀌었고, 그는 이런 군중들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들 마음에 노래를 빼앗기지 않고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3-

환난 중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

오래 전 영국에서는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교하는 자는 무조건 벌을 받는다”라며 신앙을 제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이 법을 어겨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앓을 보지 못하는 그의 아내는 거지처럼 구걸하다가 죽게 되었고, 그의 세 자녀들도 졸지에 고아가 되어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달란트를 주었노라.”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런 환상이 보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그 유명한 존 번연(John Bunyan)이며, 그가 쓴 책이 바로 ‘천로역정’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시편 107: 28,29-

